Artlink

Three Asian Artists at the 8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Three Korean artists at the 8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Yeon Shim Chung on artists Choi Jeong-Hwa, Haegue Yang, and Siren eun young jung

제8회 아시아퍼시픽트리엔날레의 한국작가 3인

정연심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 Pacific Triennial in 1993 at the Queensland Art Gallery (now QAGOMA), South Korea has been represented in every exhibition. This year, Choi Jeong-Hwa, Haegue Yang, and siren eun young jung are participating in APT8.

Choi Jeong-Hwa, immersed in postmodern ideas and experiments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rtists of his generation. The artist's endeavours in installation, experimental happenings, and curation secure his role in the New Generation of Korean art. Although most of his professors at Hongik University, where the artist received a BFA in painting, favoured Dansaekhwa (abstract or monochromatic modernist painting), Choi's path embodied idiosyncratic resistance to the mainstream art world of the time. Selected to participate in APT2 in 1996 he made an impact with his huge motorised inflatable sculpture Super Flower, one of the most talked-about pieces in the exhibition.

The artist employs cheap and ubiquitous materials, such as plastic baskets, chairs and flowers. Vivid colours are conspicuous in such works as *Cosmos, Plastic Mandala* and *Alchemy*, which Choi will exhibit in the 2015 Triennial. Ironically, everyday plastic objects, which are the industrial results of a mass culture and its commodity, are everywhere in the traditional Korean art market. In response to this abundant plastic materiality, Choi converts everyday things into sculpture, installation, interior design and architecture to mark the phenomenon of a kitsch mass culture of consumerism. The artist is an alchemist, changing a plastic, synthetic world into a Buddhist Mandala and cosmos by humorously navigating the low and the high, the profane with the secular.

Siren eun young jung works with the politics of identity, femininity, and masculinity; she is interested in the way the genders subvert their given roles in Korean society. This is apparent in *Yeosung Gugeuk*, for which she was awarded the 14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Art Award in 2013. The *Yeosung Gugeuk* literally means "Women Playing", to engage with a genre of art that like a musical, combines song and dance, but in which women play both the male and the female roles. This genre, born in postwar Korea that reached its pinnacle in the 1950s and 1960s, is currently in decline due to the arrival of television as well as other musicological reasons in the late 1960s. For the past four years, Jung has tenaciously interviewed and filmed surviving actresses who have portrayed both women and men, and researched the way this genre has disappeared in contemporary Korean musical history. In Jung's single-channel video work, the masquerading woman playing a male role in a musical defies the given structure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in the society, surpassing social expectations of gender roles and description. The way she moves, uses her voices and gestures become a new political possibility in resisting the given conservative gender roles in Korea.

Haegue Yang is currently based in Berlin and Seoul. Her recent solo exhibition entitled *Haegue Yang: Shooting the Elephant Thinking the Elephant* was at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spring 2015; the title of the show stems from George Orwell's essay "Shooting an Elephant". Yang's work is wide ranging, creating a sensory installation filled with common objects such as infrared heaters, electronic fans, laundry racks, bright brass bells. Delicately moving sound wavers between the blinds and the ceiling-high screens while smells are emitted from elsewhere. The blinds and screens generate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the private and the public. Since in and out can easily be out and in, or otherwise enabling a subversion of the space that we are used to, it is always transitional and transformative. These objects in Yang's oeuvre create an anthropologically "liminal space" as a threshold of art and non-art, sensory and non-sensory, political and nonpolitical, civilisation (the industrial) and non-civilisation (the primitive). These elements of border and cultural zone are constantly interplaying in Yang's work. Since the creation of her work of *Sa-dong 30* at the abandoned house, a community-based art project near Seoul (Incheon) in 2006, Yang has been internationally active, presenting *Series of Vulnerable Arrangements – Blind Room* at the São Paulo Biennale in 2006 and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Venetian blinds in the Kassel Documenta 13 in 2012. For the APT8, the artist has been working on Sol LeWitt *Upside Down – Open Modular Cubes (Small), Expanded 958 Times*, which is a blind installation after Sol LeWitt, echoing his *Open Modular Cubes (Small)* of 1995.

Yeon Shim Chung is Associate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Seoul, where she teaches contemporary art.

퀸즈랜드아트갤러리(현재 QAGOMA)에서 시작된 아시아퍼시픽트리엔날레(이하 APT)에는 1993년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 회 한국 작가들이 소개되었다. 올해 APT에서는 세 명의 한국작가가 참여하는데, 그들은 최정화, 양혜규, 정은영이다.

최정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포스트포더니즘 실험을 감행해 온 그의 세대 작가들 중 중요한 작가로 손꼽힌다. 그는 설치, 실험적인 해프닝, 큐레이팅으로 당대의 신세대 작가로 독보적 활동을 펼쳤다. 그가 학사 학위를 받은 홍익대학교에서는 당시 재직 중이던 교수들이 모두 단색화 경향을 따랐다. 단색화는 추상회화 혹은 모노크롬 모더니스트 회화를 지칭한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최정화가 선택한 길은 당시 예술계의 주류라고 여겨지던 경향에 저항하는 것으로 매우 특이한 행보였다. 1996년 제2회 APT에 참여하게 된 그는 <수퍼 플라워(Super Flower)>라 불리는 모터로 부풀릴 수 있도록 된 거대한 조각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이 작품은 당시 전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작품 중 하나이다. 그는 플라스틱 바구니, 의자, 꽃 등 값싸고 흔한 재료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 2015년 APT에 출품한 <코스모스(Cosmos)>, <플라스틱 만다라(Plastic Mandala)> <알케미(Alchemy)> 등의 작품에서는 눈에 잘 띄는 선명한 색채가 인상적이다. 그가 활용하는 일상적인 플라스틱 오브제는 전통적인 한국 예술 시장에 가면 어디에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중문화, 혹은 이와 관련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최정화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의 물성을 활용하여 키치한 대중문화와 소비주의의 특성을 가진 조각, 설치, 인테리어, 그리고 건축물을 만들어 낸다. 예술가 스스로가 연금술사로 변모하여 인공적인 재료들을 불교의 만다라, 소우주로 변형시킨다. 이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를 허물며 유머러스 하게 그 간극을 넘나드는 것이다.

정은영은 정체성,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치학을 작품의 주제로 다뤄 왔다. 그러나 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주어진 성 역할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여성국극>에서 이 같은 그의 관심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2013년 제 14회 에르메스미술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여성국극'은 문자 그대로 여성이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국극은 뮤지컬과 마찬가지로 노래와 춤을 한데 섞은 극의 형태로, 여성 연기자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모두 연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극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전후 한국사회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르는 1960년대 후반 다른 음악학적 이유와 함께 텔레비전의 널리 보급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지난 4년 동안, 정은영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연기했던 생존한 여성 배우들을 인터뷰하였고, 한국 현대 뮤지컬의 역사에서 이 장르가 사라지게 된 연유에 관해 연구했다. 정은영의 비디오 작품에서 극 중에서 남성의 역할을 맡은 여성 배우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조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 역할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여배우의 걸음걸이, 목소리, 제스쳐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구분된 성 역할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양혜규는 현재 베를린과 서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봄 리움미술관에서 개인전 <양혜규: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가 열렸다. 이 전시 제목은 조지 오웰의 에세이 <코끼리를 쏘다>에서 따온 것이다. 양혜규의 작품은 적외선 리터, 전기 선풍기, 세탁물 선반, 놋쇠 방울 등 일상적인 오브제를 활용한 감각적인 설치가 주를 이룬다. 블라인드와 천장 높이의 스크린이 움직이며 섬세하게 소리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특정한 향기가 다른 곳에서부터 내뿜어진다. 블라인드와 스크린은 내부와 외부, 사적인 곳과 공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과도기의 상태에 있고,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안과 밖이 금새 바뀌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공간을 파괴하기도 한다. 양혜규 작품의 오브제는 인류학적으로 '선형적인 공간'을 만든다. 마치 예술과 비예술, 감각과 비감각, 정치와 비정치, 문명과 비문명/원시 등과 같은 상반된 개념 사이의 '문지방'처럼 말이다. 경계, 혹은 문화적인 차이는 지속적으로 양혜규의 작품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난다. 2006년 인천에서 선보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사동 30번지>를 선보인 이후, 양혜규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2006년 상파울로비엔날레에서는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Series of Vulnerable Arrangements-Blind Room)>을 선보였고, 2012년 카셀도쿠멘타13에서는 베네시안 블라인드로 만든 작품을, APT에는 <솔 르윗 뒤집기-958배로 확장된, 모듈식의 정육면체>를 출품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 작품은 솔 르윗의 1995년 작품 <열린 모듈식의 정육면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정연심은 홍익대학교 교수로 현대미술에 관해 강의한다.

번역 최정윤 Translated by JeongYoon Choi

Haegue Yang *Sol LeWitt Upside Down – Structure with Three Towers, Expanded 23 Times* 2015, aluminium venetian blinds, hanging structure, steel wire. Installation view *Shooting the Elephant: Thinking the Elephan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2015. Photo: Hyunsoo Kim. Courtesy of Galerie Chantal Crousel, Paris and Kukje Gallery, Seoul